

적토마(赤兔馬)의 해, 병오년(丙午年)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시상송

시상송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우리 말의 발음을 너무 마음대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를 낭송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표준 발음을 할 것을 권장한다. 물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투리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시어는 표준어로 발음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그동안 들어온 질문을 묶어서 답하는 식으로 진행해보기로 한다.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가슴이 넓은 독자들께서 헤라하여 주실 줄 믿는다.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발음과 수정한 것이다. '6시(의(여선 씨의)→여씨씨)' '쌀(이고(싸)고)→싸이고' '맞혀주는(매터주는)→매쳐주는' '산뱀(나무(산뱀)나무)산뱀(나무)→산뱀(나무)와 같이 발음을 잘못된 것들이 제법 많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한 것들은 발음이 이상이 없는데, 대중 배운 사람들이 문제다.

다 설명하기에는 이 지면에서는 어렵기에 '맞혀주는'이라는 단어만 살펴보기로 하자. 아마도 '맞다'를 [만다]로 읽기 때문에 여기에 'ㅎ'을 더하니 '매쳐주는'으로 발음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만'보다 먼저 'ㅈ' + 'ㅎ'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말은 'ㅎ'과 만나면 변하는 경우가 많다. '좋다'의 발음은 [조타], '좋아'의 발음은 [조아]라고 하니 참 재미있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학회 회장



이원오의 신년운세

한국역학사협회 부이사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丙午)는 음양오행상 강력한 화기(火氣)를 내뿜는다. 천간 병(丙)은 이글거리는 태양이요, 지지 오(午)는 가장 뜨거운 한 낮으로, 동물로는 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올해 병오년은 적토마(赤兔馬)의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적토마는 명마(名馬) 중 명마다. 온몸이 선명한 붉은색이고, 말갈기가 마치 불타는 것 같아서 적토마로 불렸다. 낮엔 천리, 밤에는 팔백 리를 달렸다고 한다. '인중여포 마중적토(人中呂布 馬中赤兔)'는 사람 중에 여포가 으뜸이고, 말 중에 적토가 으뜸이라는 뜻이다. 적토마는 처음에 동탁이 여포에게 주었고, 조조가 거두어 관우에게 선물로 주었다. 관우가 죽은 후 손권이 마중에게 선물로 주었으나 굶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주인을 향한 충성과 절개로 마음을 짠하게 한다.

사력을 다해 자신을 불태우는 병오(丙午)의 기운이 적토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불꽃같은 열정은 경쟁에도 강하며 진취적이고 강력한 패기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 아군만을 생각하는 편협함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직진성은 격렬한 반대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주는 육십갑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서 시민들이 해돋이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자 중 갑인(甲寅)에 해당한다. 갑인(甲寅)은 천간 지지 모두 우뚝 선 거목(巨木)의 양상을 띠고 있다. 甲은 맨 처음이자 으뜸을 나타낸다. 寅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새벽의 시간이며 호랑이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甲寅은 부러지지 않는 큰 나무의 형상으로 술한 외침과 위기 속에서도 민족적 자부심을 지켜온 강인한 생명력과 개척정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사주 갑인(甲寅)으로 볼 때 병오년이나,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의 운세를 맞이했다. 식신(食神)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활동력을 통해 복록을 얻는 것이며, 교육과 나눔의 상징이다. 상관(傷官)은 진취성과 격렬함으로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신의 별이다. 또한, 나무(木)와 불(火)이 서로 통하여 재능을 꽃피운다는 '목화통명(木火通明)'의 형상이니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발전이 있을 것

이다. 이런 면에서 국운(國運)을 살펴야 하겠다.

국제정세는 마중, 마러, 일중 갈등이 반복될 것이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국면전환을 위해 김정은과 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마중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로 국익을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력 건설에 힘쓰면서 외교적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의 대화 추진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여야의 사생결단식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스캔들이 터지고 기존 정치인들의 낙마가 줄을 이을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청와대는 내각 개편 등 국정 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며, 여야 모두 책임소재와 당권을 놓고 치열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지속적인 약진이 기대된다. IT와 AI 등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환율과 수출, 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낙관할 수 없다. 지방선거 후 가계부채의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분야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 사교육 등 난제를 극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 여야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부동산 분야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곽은 유지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부의 편중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선거 전과 후에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급등락 현상이 반복되고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넘쳐므로 화재와 폭발, 폭염, 가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군중이 몰려드는 공중장소에서 행사는 안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2026년 병오년은 선거를 통해 민심의 향방이 나타나고 내란재판 결과에 따라 정세가 요동칠 것이다. 격렬한 변화의 기운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전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분쟁과 다툼을 최소화하고 화를 잘 다스리면서 자중자약하는 한 해를 보낸다면 성취와 발전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1세대 실손, 잘못된 건 계약자가 아니다



데일리 Talk

이세희
산업경제부 기자

5세대 실손보험이 2026년 출시된다.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누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당국은 "실손이 개인과 보험사의 사적 계약이더라도 의료 이용을 자극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친 감정은 논리보다 앞섰다. "사보험을 왜 공보험처럼 다루느냐"는 반문은, 개인이 맺은 계약의 규칙이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계속 바뀌는 데서 생긴 불신의 표현이다.

기자 역시 1세대 실손보험을 '막바지'에 가입했다. 당시 "앞으로 보장이 축소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

입 열기가 엄청났다. 영업 현장은 특근을 자처하며 마지막 판매에 열을 올렸고, 콜센터는 쏟아지는 전화를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계약이 몰렸다. 그 열기 속에서 이뤄진 계약이 시간이 흘러 '정리 대상'처럼 거론되고 있으니, 계약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만난 1세대 계약자들의 의견도 같은 맥락이었다. "보험료를 성실히 냈다"로 시작해 "왜 이제 와서 눈치를 주느냐"로 끝났다. 한 60대 계약자는 "나중에 병일 갈 때를 대비해 가입했고 해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적지 않게 올랐지만 "나이 들면 입원 한 번이 집안을 흔들 수 있다"며 버텼다는 얘기다.

또 다른 계약자는 "입원료비 같은 담보는 갱신형이라 가입기간 내내 갱신하며 보험료를 올려 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보장기간 동안 계속 '갱신'을 감당하는 상품이니, 인상된 보험료 역시 '노후 보장'의 대가로 받아들여왔다는 뜻이다.

이런 배경 탓에 1세대 가입자가 특히 민감하게 반

응하는 단어가 '전환'이다. 당국은 선택지를 넓히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없애자는 말 아니냐"는 경계심이 먼저 나왔다.

"새 상품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 "돈을 얹어주며 해지를 유도한다는 말도 들었다"는 전언이 뒤따랐다. 더 거칠게는 "우리가 건강보험 적자의 원흉이나, 죄인이나"는 반문도 나왔다. 실손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반복될수록, 계약을 오래 유지한 가입자들은 그 말이 자신들에 대한 낙인처럼 들린다고 했다.

실손보험 확산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보험사도 이를 의식해 상품을 계속 개정하면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며 비급여 보장을 줄여왔고, 그 결과 현재의 4세대 보험은 1세대와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상품이 됐다.

다만 과잉 이용의 책임을 계약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의료기관 역시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과잉진료를 부추긴 측

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만 조이면 '환자만 때리는 개혁'이란 반발이 커지고, 보험 규제를 하더라도 비급여 가격마케팅 유인 같은 의료현장 구조가 그대로라면 '보험만 압박하고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비급여 관리는 결국 보험 설계 조정과 의료공급 측 유인 통제까지 함께 가야 실효성을 얻는다.

의료체계 왜곡을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은 줄이되 약속은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1세대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성실 납부자들이 낙인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 방식을 바꾸고, '전환'은 자발적 선택으로 남겨줘야 한다. '강제 해지'로 비칠 만한 움직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랜 기간 감수해온 갱신 보험료는 '미래 보장'에 대한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2026년의 5세대는 또 한 번의 분열로 기록될 수 있다.

saylee@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이상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청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7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컬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